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5.11.27.(금) 10:45 < 11.27.(금) 석간 > 배포 2025. 11. 26.(목)

산업부 장관, 베트남 중앙정책전략위원장 만나 첨단산업·원전·공급망 등 전략적 경제 협력 논의

- 베트남 산업 고도화를 위한 원전 및 첨단산업 협력 방안 논의 -
- 제조 AI 정책 공유, FTA 업그레이드 개정 검토 및 공급망 협력 확대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27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우옌 타잉 응이(Nguyen Thanh Nghi) 공산당 중앙정책전략위원장(이하 응이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첨단산업 및 원전 협력, 공급망 강화 등 전략적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 당 중앙정책전략위원회는 베트남의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총괄하는 당 핵심 기구이다. 이번 면담은 내년 한-베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양국 정상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최상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정관 장관은 면담에서 금년 양국 교역과 한국의 누적 對 베트남 투자가 모두 1,000억 불을 달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베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베트남이 2045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산업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국의 교역순위('26.1~10월, 억불) : (1위) 중국 3,537 (2위) 미국 2,513 (3위) 베트남 1,121 (무역협회)
- 교역액 : '26.1~10월 1,121억불(對 베트남 수출 800억불, 수출액 321억불)
* 對 베트남 한국 투자('26.1~9월, 억불): 10,624건, 1,041억불(누적) (베트남 재무부)

이를 위해 김 장관은 베트남이 희망하는 전자·조선·철강·소재부품·에너지 기자재 등 주력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7~2030년 중장기 한-베 산업 발전 행동계획」을 베트남 정부와 공동 수립할 계획임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원전 건설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기업지원·기술개발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베트남이 최근 일본과의 닌투언 2 원전 협력을 공식 종료한 것과 관련하여, UAE와 체코 등에서 입증된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과 인력양성·현지화 역량을 바탕으로 닌투언 2 원전 사업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가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제조 AI(AX) 및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 협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장관은 1,500여 개의 제조·AI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제조업 기반을 갖춘 베트남과 양국 기업·유관기관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AI·인프라 투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교역 및 자원·공급망 분야와 관련해서는 양국 교역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베트남 기업 역량 강화와 공급망 참여 확대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발효 10주년이 경과한 한-베 FTA('15.12)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접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베 FTA 업그레이드 개정에 대한 검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참여 중인 LNG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석유 비축기지 건설, 청정에너지 및 핵심광물 고부가가치화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과 베트남은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최적의 파트너"라며, "오늘 논의된 교역 투자 확대 방안과, 첨단기술, 자원·공급망 분야 협력이 양국의 공동 번영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장	김진수 (044-203-5710)
	아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이혜영 (044-203-5714)
	원전전략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동환 (044-203-5280)
	원전수출협력과	담당자	서기관	우지식 (044-203-5283)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권순목 (044-203-3830)
	산업인공지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우상 (044-203-39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